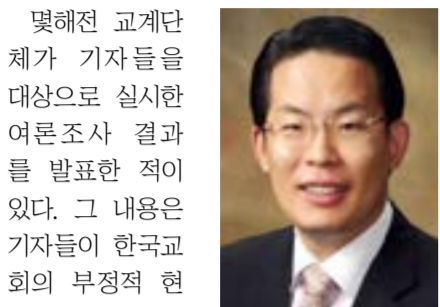


올드보이 전성시대, 언제까지인가?

교회건강연구소장 이효상 목사 기고



이효상 목사

몇해전 교계단체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기자들이 한국교회의 부정적 현상에 대해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교회가 뼈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이다. 응답자의 90%가 한국교회 분열의 가장 큰 이유를 지도자들의 명예와 욕심, 공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 때문이라 지적한 것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기자들은 한국교회의 연합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한국교회를 이끌 '지도자의 부재' 때문이라 지적했고, 한국교회 연합의 가장 큰 걸림돌을 교권과 명예에 대한 '지도자들의 욕심'이라 답해 한국교회 지도자의 문제가 심각함을 엿보게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지도자들의 문

제라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지도자들 때문에 개신교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한국교회는 이미 노화되고 고령화되어 6.13지방선거에서 보듯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정당과 같은 이미지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젊은 다음세대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고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올드보이》(Old Boy)는 박찬욱 감독이 2003년에 찍은 영화다. 이유로 모른채 15년을 갇혀 지낸 남자가 자신이 갇힌 이유를 알아내는 과정을 그렸다. 이처럼 기존세대에서 10년 이상 차이가 나며 소통이 되지않고 단절되는 세대를 가리켜 일명 '올드보이'라고 부른다.

한국교회의 문제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후유증도 따지고 보면 일선 교회나 목회자, 교인들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결국 연합기관의 사본오열 사태도 '지도자들의 부재'라 말할 수 밖에 없다.

교계에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만들어지면 역할의 성격과 상관없이 정치적 수완이나 전직 경력이 화려한 정치꾼들과 노인들이 제일 앞줄의 감투를 차지한다. 나이와 교단 순에 의해 위계질서가 만들

어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은퇴한 70대 노인이 지시하고 50, 60대는 애 취급받으며 움직이는 시스템이 된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회의하고 밥먹고 모여서 한 일이 생산적이고 영향력 있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나 감투를 지키기 위한 일이고 패거리를 늘리는 일이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문제를 만들었고, 지도자들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교계 기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교회를 이끌 지도자의 부재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말이다.

지도자는 연예인이 아니고, 지도력은 장식물이 아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인기 자체가 목적이지만, 지도자는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지도력을 사용한다. 이런 지도력은 평상시에 단련돼 실천(實戰)에서 빛나고 결과로 평가받는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보듯 지도력이 장식물이 되면, 평상시 의전(儀典)에는 강해도 실전에서는 오히려 약한 군대가 되기 십상이다.

실전에 강한 군대의 의견은 소박하다. 겉치레가 아무리 화려해도 지도자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지도력은 허상(虛像)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마음은 '연합기관'을 떠나 있는 듯하다. 분열과 갈등, 허송세월 10년이다. 이쯤되면 부부싸움에 집나간 자식 돌아오게 하듯 지도자들이 '연합'에 진정한 성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연합하지 못하

면 연합기관 간판내리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여전히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서, 한목협의 성명처럼 '더 이상은 안된다'는 절박한 외침이 바다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애써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른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겸허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살길이 있다.

‘교단 연합기관’들의 통합논의가 몇 년째 매주 기사화 된다. 교계 연합기관들을 언론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비중 있게 보도해 준다. 지리멸렬한 연합기관이 한국교회의 구심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됐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분열의 연장이었다.

이런 관심밖의 잊혀진 연합기관의 행사를 보면 마음이 잔할 때가 많다. 살아온 경험에서 비롯된 이들의 교회와 시대를 향한 고민과 격정이 왜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는다. 왜 이들은 자신들끼리 고립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을까?

‘한국교회를 대표하겠다’는 이런 여러 연합기관들을 보면 20명 가까운 공동회장들이 60대 중반에서 70대다. 총회장을 역임하고 물러났거나 아니면 은퇴한 분들이 모여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이미 올드하다.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이런 인적 구성의 기구는 '연합운동은 높은 정치꾼 올드보이들의 전유물인가'라는 인상을

또 한 번 주게 된다. 이런 기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할지 모르나 이미 굳어버린 이런 경로당 이미지와 사고로 인해 그 폭(幅)을 좁히는 손실이 더 크다.

차라리 자분들이 나서서 아끼는 후배나 제자들을 설득해 이런 기구를 운영하게 한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는지 모른다. 기업이나 어떤 조직도 젊은 세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걸러내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지난 시절 어떤 기관의 대표회장은 소위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열심이었다. 교단을 만들기도 하고 10년 이상을 총회장과 대표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그 자리가 '벼슬'처럼 되고 '총회장'이 직업이 되었다.

그 단체 구성원들도 그와 함께 덩달아 늙었고 수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세상 흐름과 감각을 따라잡는 게 어려워진다.

아무리 명분이 뛰어나고 인품, 신앙이

뛰어나도 조직이 망하면 그는 최악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누구보다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조금 젊다고 하는 60대도 마찬가지이다. 호랑이 사라진 골목에 토끼가 왕노릇한다고 막상 본인들이 60대에 들어서면 매스컴에 소개되는 조직을 만들어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에 주력한다. 정책이나 경륜과 상관없이 인물주의의 이븐트라는 이미 선배 '올드보

이'들이 했던 그 코스를 그대로 답습한다. 그래서 또 다시 '올드보이'의 시대를 만든다.

젊은 교회는 젊은이들을 품지 못하고, 다음 세대는 교회 밖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일에 충분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는 언제까지 장기적 정책 대안은 없이 1년직 자리나 인물중심의 '올드보이'들의 전성시대인가?

그래서인지 혼돈의 시대에 한국교회의 역할은 더욱 요구되지만, 현실에서 교회는 더욱 그림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교회, 변화할 것인가? 변신할 것인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진정 걱정을 한다면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고 후배들을 키우고 그들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한다. 50대 대표, 40대 총무와 사무총장이라는 인적쇄신은 불가능한 것인가? 교단이란 기관이란 같은 자리를 세 번이상 역임했으면 그는 이미 원로다.

자신은 뒤에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원하고 조직은 또 다른 세상의 변화와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글을 읽으면서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며 열을 많이 받으신다면 정말 죄송하다. 그런데 그는 이미 '사고(思考)의 올드보이'이다. 한국교회를 아우르는 유연성도, 사회변화를 읽고 받아 드리는 수용성도 떨어지니 그것이 그 수준이자 한국교회의 한 계이다.

크리스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비전·섬김·실행으로 세상을 치유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후원회 김진혁 사무총장 칼럼

리더십에 관한 책과 세미나가 넘쳐난다.

매년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 경제인들이 지구촌의 현안을 모색한다. 2017년 주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이었다. 이처럼 리더십은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 기업,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중요한 과제이다.

리더십이란 조직체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의 역할과 영향력이다. 구성원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리더의 자질이



김진혁 사무총장

다. 일반 리더십과 성경적 리더십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크리스천으로서 꼭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하여 알아본다. 리더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여 공감과 소명으로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목사이며 작가인 존 맥스웰은『리더십 법칙』에서 "천천히 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제자리에 서있는 것을 걱정하라"고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다섯 가지 단계를 주장한다.

첫 번째 단계는 지위(Position)이다. 당신의 특정한 지위가 사람들을 의무감으로 따르게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허용(Permission)이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지위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리더를 따른다. 세 번째 단계는 성과(Production)로 리더는 결과물을 낳아 조직의 성공에 기여한다. 네 번째 단계

는 인물계발(People)로 후계자 양성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인격(Person-hood)이다. 크리스천리더십과 겹쳐 같이 한다. 사람들이 당신의 인격과 일을 통해서 존경하는 최고의 리더십이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경우에, 당신의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가? 아니면 당신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는가?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영적 영향력에 미치지 못한다면 크리스천 리더가 아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말보다 행동으로, 관리가 아닌 스스로 따르게 하는 능력이다.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 13:7)

크리스천 리더십의 3가지 요소는 첫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신앙인. 크리스천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킨다.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비저너리(visionary)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11절에서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다양한 은사지만 성령 리더십

은 동일하다. 개인의 스펙이나 사회적 신분, 재산 등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다. 각각 개별적으로 받은 소명(召命)을 담당하는 셀프리더인 셈이다. 비전의 리더는 자기 생각, 야망, 꿈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님이 주신 비전을 계승하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배워야 할 것이다.

둘째, 섬기는 종의 술선수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것처럼 말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막 10장 43)

신앙인은 남에게 먼저 대접하고 발을 씻겨 준다. 긍휼과 섬김은 예수 리더십의 핵심이며,

그분의 비전이다. 마더 테레사(1910~1997, 노벨 평화상)와 사도바울처럼 예수의 십장을 품고 섬기는 리더가 되자. 지지자를 모집하거나 추종자를 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게 하는 영적지도자가 되기 위해 기도한다.

셋째 사랑의 실천이다. 크리스천(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고, 허물을 용납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산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들을 보살피고 용기를 북돋운다. 기독교 본질은 사랑이다.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희생과 나눔, 섬김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덕목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녀 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신다. 그 영향력은 우리를 통해 본받을 만한 삶의 모범에서 나온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크리스천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갖는다. 언제나 기도하는 아담과 요셉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 손ਅ원 목사처럼 종교적 의식이 아닌 원수까지 사랑하는 실행이 요구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 그리스도의 편지(고후 3:3).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된다(마 20: 25)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 천국의 상급을 받는 영적

리더십(Trust Based Leadership)을 기대한다.

오늘날 교회가 리더십 위기에 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리더십 부족 때문이다. 자신을 리더라고 느끼면서도 정작 크리스천의 중요한 덕목을 실천하지 않는다. 말로만 외치는 기복신앙에 갇혀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에 오르코자 애쓰지만,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리더십의 귀감은 절대적으로 본받고 신앙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크리스천 리더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행동하는 신앙이다.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사다.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개발될 수 없다. 리더십의 기본토대는 믿음과 신뢰다. 리더십은 봉사를 통해 가치를 부여한다.

리더가 되고 싶은가? 비전, 섬김, 사랑의 실천을 따르라!

영사주 함께 읽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이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스콜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미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해쳐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제,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런, 여전히 쓸 만해."

하얗고, 오래되고, 뒤통수엔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마스터 이효제

한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문의 02-724-7227 **마이썸**